

1. 말씀

26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27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28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9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30 하나님은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31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32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33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34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35 그런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고난입니까? 괴로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36 이것은 성경에 "우리가 주를 위해 하루 종일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도살장의 양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37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뜬히 이깁니다.

38 그러므로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지옥의 권세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2. 관찰

-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나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 _____

-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 _____

3. 메시지

- 본문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26절)

→ _____

-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었나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 _____

-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나요?(28절)

→ _____

- 우리가 기도할 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마음을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26~27절)을 읽고, 나의 삶에서 성령님이 중보하심을 경험한 순간이 있었는지 나눠보세요

→ _____

- 28~3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정체성과 가치를 어떻게 새롭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내가 삶 속에서 느끼는 실패와 연약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 _____

- 31~34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질문합니다. 삶에서 내가 느끼는 두려움이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 _____

- 35~39절에서는 어떤 고난이나 권세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내가 직면한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확신하지 못할 때, 이 말씀을 붙들기 위해 어떤 믿음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 _____

4. 적용

-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는 무엇입니까?

→ _____

- 오늘 본문을 통해 나의 기도생활, 두려움, 고난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_____

5. **묵상 나눔**(아래 묵상 나눔은 함께하는교회 교인 한 분이 개인적으로 적은 묵상 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현재 묵상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롬 8:26-39(구원의 확신)

성도의 구원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계획되고 확정된 은혜의 역사이기에, 우리는 그 확신 안에서 인내로 성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대적하며 송사하여 우리를 정죄하려 하지만,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능히 이기며, 어떤 것도 우리를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은 모르며, 설령 일부 알아서 이해하려고 해도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임에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에게 영적 통찰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온갖 고통으로 내모는 순간에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어떤 극한의 상황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고 간증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6. 기도